



39. [3점]

But the difficulty in discovering the truth does not prove that there is no truth to be discovered.

Most men are inclined to agree with Hamlet: 'There is nothing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 (①) It is supposed that ethical preferences are a mere matter of taste, and that if X thinks A is a good thing, and Y thinks it is a bad thing, all we can say is that A is good for X and bad for Y. (②) This view is rendered plausible by the divergence of opinion as to what is good and bad, and by the difficulty of finding arguments to persuade people who differ from us in such a question. (③) If X says A is good, and Y says A is bad, one of them must be mistaken, though it may be impossible to discover which. (④) If this were not the case,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m. (⑤) It would be absurd, if X said 'I am eating a pigeon-pie', for Y to answer 'that is false: I am eating nothing'.





지문분석

① Most men are inclined to agree with Hamlet: 'There is nothing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

대부분의 사람들은 햄릿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좋고 나쁜 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무엇이: 생각이
어떠하다: 좋고 나쁜 것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해석 연습이 아니라 독해 연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는 말을 보고 떠올려야 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절대성, 객관성이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만 존재할 뿐이니, 그것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상 독해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각 Vs 실체'의 싸움이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주관 Vs 객관'까지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해의 미학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치 숨겨놓은 보석을 찾는 것처럼 영어에 대한 억눌림을 벗어나 마음을 열고 필자의 마음과 소통하고자 하니 글 전체가 달라보이지 않는가.

② (①) It is supposed that ethical preferences are a mere matter of taste, and that if X thinks A is a good thing, and Y thinks it is a bad thing, all we can say is that A is good for X and bad for Y.

사람들은 흔히 윤리적 선호도들은 단지 취향의 문제일 뿐이며, 만약 X가 A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Y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A가 X에게는 좋지만 Y에게는 나쁘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첫 문장 이후의 다음 문장들은 의미파악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첫 문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단, 역접의 연결어가 없으니 첫문장의 호흡을 순접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연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ethical preferences, taste, think와 같은 표현들이 첫문장에서의 우리의 파악을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표현들이다. 즉, 우리가 생각한 카테고리가 맞았다는 것이다. 선호도나, 취향, 생각이라는 말이 주관인가 객관인가? 그렇다. 이것들은 모두 '다름', 즉, 주관의 영역이다.

*또한 all we can say 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와 같은 뉘앙스이다. 여기에서 이 '주관'의 영역의 '한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이 문장의 시작을 보라. 'It is supposed that ~'는 직역상으로 it이 가주어이고 that이 진주어이니, 'that~ 라고 생각된다'이겠지만, 이 수동태에서 생략된 행위자는 우리가 중학교때 배워 알고 있듯 by people이다. 그러니 이 문장의 뉘앙스는 '흔히 사람들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독해의 흔한 패턴이 또 하나 나온다. 즉, '흔히 ~라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필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기 전에 깔아 놓는 대조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흔한 통념은 거의 항상 필자의 주장을 위한 희생량이다. 이후에 역접과 함께 필자의 반대 관점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필자의 반대 관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도입부부터 이 문장까지 파악한 관점은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주관'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객관'이다. 아, 독해란 진정 얼마나 멋진가!

③ (②) This view is rendered plausible by the divergence of opinion as to what is good and bad, and by the difficulty of finding arguments to persuade people who differ from us in such a question.

이 관점은 무엇이 좋고 나쁨가에 관한 의견의 분화에 의해,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주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의해 그럴듯해진다.

*this view라고 했으니 '주관'의 관점을 계속 이어간다.

*this view가 '그럴듯해 진다'고 했으니 어떤 점 때문에 '주관'을 주장하게 되는지의 근거가 나올 것이다.

*그 근거는 현상적으로 좋고 나쁨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④ (③) If X says A is good, and Y says A is bad, one of them must be mistaken, though it may be impossible to discover which.

만약 X가 A가 좋다고 말하고 Y가 A가 나쁘다고 말한다면, 비록 어느 쪽인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둘 중 하나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must에 주목하자. must는 당위성이다. 즉, 100%를 뜻한다. 둘의 의견이 다른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관'인가 '객관'인가? 그렇다. 이것은 '객관'이다. '당위', 100%는 '객관'이다. 비록, 어느 쪽이 '절대' 맞았고, 틀렸는지를 밝히기까지는 못한다 해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렸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맞았다는 것이 바로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든다.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취향'의 문제라는 것이 '주관'의 영역에 있음에 대한 주장에 수긍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즉, 우리가 필자의 주장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다. 여기에 바로 독해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독해는 하나의 세상이다. 그 세상에는 그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 이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의 중력이라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듯이, 그 세상의 질서가 아래에서 위로의 힘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힘의 지배 원리를 파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즉, 아래에서 위로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위에서 아래로의 힘을 바라는 '나의 마음'은 무용지물이다. 이것이 바로 독해에서 지양해야 할 읽는 이의 '주관'의 위험성인 것이다.

*이렇게 주관을 배제하고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비록 어느 것이 옳은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보면, ③에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필자의 생각이 대략 정리된다. 즉, 여기까지의 필자의 주장은 한 마디로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⑤ (④) If this were not the case,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m.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위 문장에 대한 근거이다. 그런데, 이 '그렇지 않다면'의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위 문장에는 두 개의 명제가 있다. 즉,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명제이다. 이 중 하나를 문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독해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직관적으로 글의 호흡을 끊이지 않고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찾는가? 분명한 것은 누구도 '독해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연습과 고민만이 답이다.



*자, 이제 답을 밝힌다. 그것은 바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이다. 그래야 뒤와의 호홉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찾음으로써 위와의 연계는 물론 남은 뒷부분과의 연계가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장인 것이다. 즉, 어떤 이론 자체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인 것이다.

*어느 것이 옳은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의견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어느 것이 옳은지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의견 차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⑥ (⑤) It would be absurd, if X said 'I am eating a pigeon-pie', for Y to answer 'that is false: I am eating nothing'.

만약 X가 '나는 비둘기 파이를 먹을거야' 라고 말한다면, Y가 그건 틀렸어: 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라고 대답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⑤의 근거이며 예시이다. 이 예시가 맞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주장과의 일치가 중요하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며, 예시를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 즉, 이것이 위의 주장과 일치하려면, 누군가가 자신의 선호도를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바로 '확실한 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둘의 '선호도 논쟁'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제시문 분석 및 정답 찾기

But the difficulty in discovering the truth does not prove that there is no truth to be discovered.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의 어려움이 진리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본문을 이해했다면, 정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 ^^;



풀이 총평

우리는 왜 영어 독해에 자신이 없는가. 정말로 이해 불가의 글이라면 그 불안은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문장 자체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그 불안도 정당하다. 그러나 그 둘이 아니라면, 즉, 어떤 글이 분명히 제한된 내용 안에서 이해 가능한 논리적 글이며, 그 안의 문장들을 해석할 영어의 기술이 갖춰져 있다면, 그 불안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이는 과장된 주장이고 억측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구도 '독해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불안의 근거가 바로 '회피'에 있다는 것이다. 물음에 대한 회피, 이해의 어려움 앞에서의 포기, 도식화를 통한 단순하고 쉬운 답 찾기의 유혹 등이 바로 불안의 근거이다. 도식화가 그렇게 좋다면, 왜 불안해 하는가? 그리고 왜 모든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가?

우리가 문제로서 마주하는 모든 지문이 난이도와 퀄리티에서 '타협'을 이룬 지문들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글을 제대로 읽는 방식을 연습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담고 있는 글이라도 말이다. 학생들은 투덜댄다. 이것이 영어인지 철학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 둘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지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단서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필자가 사용한 'must'라는 단어이다. 필자는 '전제'를 했고, 이 전제를 받아 들였기에 이 글은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그 전제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에 수궁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일단 수궁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한 것, 오직 초점을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 맞춘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푼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올해 수능을 치룬 학생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독해의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학생이라면, 그리고 독해의 정도를 통해 완벽을 기하고 싶다면, 이 글을 정독해야 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그 대가는 확실하다. 그 대가는 100% 정답이며, 문제에 임할 때의 평온이며, 문제를 내려다보는 완벽한 자신감이다.

